

## **GCF 첫 번째 사이드이벤트 마라케시 기후변화 총회에서 열려**

**2016.11.12, 마라케시** - 녹색기후기금(GCF)이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제 22차 당사국총회(COP22)에서 첫 번째 사이드이벤트를 개최했다. 개도국의 저배출 기후회복력 있는 발전경로 지원을 위해 이제까지 이뤄온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행사는 GCF의 가장 중요한 비전을 주제로 하여, 저배출 기후회복력 있는 발전으로의 진정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GCF 이사회는 국가 주인의식과 더불어 능력배양을 핵심 개념으로 삼고 국가가 GCF에 적절하게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도록 하고 있다.

자히르 파키르 남아공 출신 GCF 공동의장은 “대단히 야심찬 포부이며, GCF 이사회는 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혁신적이고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기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모든 국가와 시민사회, 민간기구의 지지를 받는 기구가 될 것이다.” 고 말했다.

GCF의 능력배양 프로그램이 이러한 노력의 중심에 있다. 개도국이 GCF 자금을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한다.

현재 57개 개도국이 능력배양 지원을 받고 있으며, 총 1,600만 달러의 무상증여 지원이 승인되었다. 이 중 37개국은 군소도서국, 최빈개도국, 아프리카 국가이다.

GCF는 최근 능력배양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지난 6월 이사회는 국가적응계획(NAP) 개발 및 자발적 적응계획수립과정 역시 지원하기로 결정하여 국가가 최대 3백만 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GCF 사업준비기구(Project Preparation Facility, PPF)를 통해 인증기구는 GCF 이사회에 제출할 사업제안서를 개발하기 위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사회는 5천만 달러 미만의 사업 제안서 승인과정을 간소화하기로 결정하면서, 특히 군소도서국과 최빈개도국의 자금 접근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 COP에서부터 1년 동안 GCF는 37개 국가에서 시행될 27개 사업제안서를 승인하고 10억 달러 이상을 할당했다. 이중 공공부문 투자는 5억6천2백만 달러이며, 민간부문 재원 활용을 위한 사업에는 6억7백만 달러를 승인했다.

이웬 맥도널드 호주 출신 GCF 공동의장은 “GCF 민간부문 사업은 94억 달러 현지투자 유발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GCF가 투자함으로써 민간부문이 이제까지 기피했던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자신감을 주고 있다. 레버리지 비율은 1-15 이상으로, GCF가 가진 엄청난 잠재력을 보여준다.” 고 말했다.

GCF 이사회는 2016년 사업투자 금액 목표로 25억 달러를 설정한 바 있다.

[번역]

하비에 만자나레스 GCF 사무총장 대행은 “GCF 이사회 사업 제안서 심의를 거듭하며 승인자금 액수가 꾸준히 성장했다. 11차 이사회에서 GCF 이사회는 1억6천8백만 달러 승인, 13차 이사회에서는 2억6천5백만 달러, 14차 이사회에서는 7억4천5백만 달러를 승인했다.” 고 말했다.

GCF 이사회는 이번 12월 사모아 아피아에서 15차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사이드이벤트에는 나미비아 환경투자기금, 미주개발은행 인증기구가 GCF 최근 이사회에서 승인 받은 사업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다.

모로코 국가지정기구(NDA)를 대표하여 참석한 모로코 환경부 장관 역시 참석하여 인증 및 사업개발과정을 GCF가 지원하는 것을 높이 산다고 말했다. 공동의장의 의견에 덧붙여 장관은 GCF 사업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는 300명 이상이 참석했으며, 녹음된 회의 내용을 들어볼 수 있다.

다음 COP22 GCF 사이드이벤트는 11월 16일(수) 12시 45분에 열리며, GCF 시각에서 본 파리협정 이행을 논의한다.

GCF 돔은 블루존 중심대로에 설치되어 있다.

※원문출처 = <http://www.greenclimate.fund/-/gcf-discusses-progress-at-marrakech-climate-talks>